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에 따른 수급 문제점 및 정책 제언

| | |
|--|----|
| - 연구 배경 | 4 |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 | 6 |
| -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 분석 | 10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수요 분석 | 14 |
| - 선임 대상 사업 확대에 따른 구간별 공급 가능 시점 | 23 |
| - 정책적 제언 | 33 |

I

연구 배경

지난해 1월 23일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함.¹⁾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의 65%(2016년 기준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구체적인 목표로 2016년 969명이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 500명 이하로 줄이고, 사고사망만인율 0.27‰를 달성코자 함.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²⁾는 506명으로 2016년의 499명에 비해 7명이 소폭증가하였음. 전체 산업 대비 건설업의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높은 수준임.

-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2016년 315만 2,859명에서 2017년 304만 6,523명으로 3.4% 감소하였으나 사고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사망만인율이 2016년 1.58‰에서 2017년 1.66‰로 증가하였음.
- 전체 산업의 경우 2016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69명으로 2017년(964명)과 유사하나 근로자 수가 늘어 사망만인율이 0.53‰에서 0.52‰로 소폭 감소하였음. 재해율은 전체 산업(0.45→0.43%)과 건설업(0.82→0.81%) 모두 소폭 감소하였음.

건설업 산업재해 정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큼. 2016년 기준 3억원 미만 현장 사망만인율 3.56‰은 120억원 이상현장의 0.67‰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